

통합특별법 2월 통과…전남광주특별시장·교육감 선출

6·3지선…현직, 직위 유지하고 입후보 가능
에너지·AI·반도체·농어업 등 지원 특례 반영
군 공항 이전 지원…공공기관 우선 배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오는 6월3일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선거 가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 로 발의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중전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원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통합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전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가 된다.

법 시행 전에 광주시장·전남지사, 시도 교육감이 행한 인허가, 조례, 규칙, 법령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출되는 특별 시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 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통합교육청 부교육감의 수는 3명으로 하되,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지방공무원으 로 한다.

부교육감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특별 시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특 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직원은 중 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여순사건, 5·18 등에 관한 민주시민교 육 기본계획 수립 시행, 영재학교 특목고 공립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권한 이 통합교육감에 부여됐다.

다만, 그동안 지역 교육단체가 요구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선제, 교육의회 구성 등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에너지, 인공지능, 반도체, 농 어업 등 산업 지원 특례와 군공항 이전 지

원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에너지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공유수 면 사용, 영농형 태양광 보장,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권한을 특별시장에 부여 했다.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육성을 위 해 AI집적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단 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경쟁력 회복을 국가책무로 명시하고, 산업전환특구 지 정,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인프라 국가 지원, 인구감소

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 특 레를 법안에 담았다.

농어업·해양수산 육성을 위해 농업진흥 지역 지정, 스마트농업·푸드테크 산업 육 성, 첨단 농식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농촌활력특구 지정, 수산·해양레저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관련 이 전 사업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도시혁 신구역 지정 등 행정·재정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 시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게 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예산권·전제 기능 확대…행정통합 일부 합의안 도출

광주·전남 시도의회
추진기획단에 전달
인사청문회 의무화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예산권 독 립과 견제·감시 기능을 대폭 확대한 행정 통합 특별법안 일부 합의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

1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 면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 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일부 합의안을 도출했다.

시·도의회는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 자치권 확보, 집행부 견 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 았다.

우선 합의안에는 의회 예산 편성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예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최근 예산권 독립과 견제·감시 기능을 대폭 확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일부 합의안을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 사진은 시·도의원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

감액 시 사전 통보도 규정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감시에 대한 기능도 강화했다.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 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 거를 마련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승인·허가·인가 시에는 사전에 특 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대 규모 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했다.

감사위원회도 의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감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자치감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사무기구의 조직·정원 등을 특 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해 특별시 규모와 인구에 맞춘 의회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 록 했다.

광주시의회는 전남도의회는 이처럼 우 선 합의된 내용을 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

의원 정수 등과 같이 이견이 있는 내용 은 추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 안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논의와 속의 과정을 통해 시·도민 모두가 만족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 획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 시가 거대 행정기관이 되는 만큼 이를 견 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도 마련돼 한 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 지 않는 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여수산단 대개조·균형발전” 공감대 형성 강기정 광주시장, 여수서 도민과 상생토크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여수 엑스포컨벤 셉터 컨퍼런스홀에서 ‘광주전남 통합 여수시민과의 상생토크’를 개최, 전남도 민과 소통을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전남지역을 순회하며 열리 는 ‘도민과의 상생토크’ 두 번째 일정으 로, 전남 시·군민을 찾아 통합에 대한 긍 급증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 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정현구 여수부 시장, 여수시민과 산업계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 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간 역할과 균형발 전 도모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설 명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동부권 신 경제지대’ 구상안인 반도체 메가벨트 조 성, 동부권 산단 대개조, (가정)남해안개 지 없는 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수·광양항 대개조로 새로운 산업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광주권-서 부권과 연계한 2차전지 신산업 육성 및 유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통합 이후 권한 분산을 통한 전남지역 균형발전을 요구했 다. 또 기반시설 투자, 임진왜란 등 여수 의 구국 역사문화 계승 등의 의견을 제시 했다.

강 시장은 “여수·광양·순천은 산업 위 기지역인 만큼 광주전남이 통합됐을 때 우선적으로 구해야될 이유가 있는 곳이 다”며 “오래전부터 전남이 잘 살아야 광 주도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생 을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행사에서 제시된 여수시 민의 의견을 반영해 통합 전략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도민과의 상생토크’는 2 월5일 영광군, 2월12일 고흥군 등 순회 초청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6·3지방 선거 앞두고 출판기념회 잇따라



강성휘 목포시장 출마예정자가 1일 목포 에메랄드웨딩홀 2층에서 ‘목포야 사랑해’ 출판기념 회를 갖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목포야 사랑해’ 강성휘 목포시장 선거 출마 에너지 대전환 중심 미래도시 구상 제시

강성휘 목포시장 출마예정자가 1일 목포 에메랄드웨딩홀 2층에서 ‘목포야 사랑해’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지원·김원이 ·서미화·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명 현관 해남군수, 박우량 전 신안군수 등 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당 정책부의장이 스폴아홈의 나이에 정치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장에서 보고 배우며 지나는 시간들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결과물을 시민들과 공유 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저서 ‘강성휘의 목포야 사랑해 (MOKPOLOVE)’에는 개인의 회고를 넘어, 목포라는 도시와 함께 걸어온 시 간에 대한 애정과 성찰이 담겼다.

강 목포시장 출마예정자는 이 책에서 완성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지나는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시민과 함께 묻고, 목포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강 목포시장 출마예정자 “이 책은 개 인의 기록이자 목포라는 도시와 함께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라며 “출판기념 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더 깊이 이야 기를 나누고, 더 뜻깊은 시간을 만든거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최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 는 강성휘 목포시장 출마예정자는 최근 까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을 지냈다.

그는 “목포는 더 이상 관리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에너지 대전환 을 축으로 한 제2의 개항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 활동에 나 설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박종원 전남도원이 지난달 31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저서 ‘박종원의 담양사랑과 꿈’ 출판기 념회를 열었다.

“광주전남통합 속 담양의 길 제시할 것” 박종원 출판기념회 대성황…군수 출마 후보 본격화

박종원 전남도의원(담양)이 지난달 31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저서 ‘박종원의 담양사랑과 꿈’ 출판기념회를 열고 담양 군수 선거 출마를 향한 행보에 본격 시동 을 걸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담양군민과 지 지자 등 3000여명이 몰리며,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16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형성된 조직력과 인 맥,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 권의 높은 관심이 한꺼번에 드러난 자 리였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지난 16년 동안 담양과 전남 현장에서 고민 해온 기록이자, 담양군민의 목소리를 담은 결과물”이라며 “말이 아닌 결과로 담양의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담양의 위상을 분명히 세우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된 2부 행사에 서는 박 의원이 부친 박인석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장면도 연출돼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 대중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해 이계호·민형배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문정 북·황명선 국회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양부남 광주시 당 위원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신수 정 광주시장 등의 축하 영상도 상영 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태 전남도원이 지난달 31일 나주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저서 ‘이재태의 오직 시민만 봄’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시민만 보는 정치’…나주의 봄 열겠다 이재태, 나주시장 출마 공식화…5000명 운집

이재태 전남도원이 지난달 31일 나 주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저서 ‘이재태의 오직 시민만 봄’ 출판기념회 를 성황리에 마치며 나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 위원장, 김대중 전남교육감, 김태균 전 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 사와 5000여명의 시민들이 대거 참석 해 이 의원의 출판을 축하했다.

이재태 전남도원은 “정치는 사람을 향해야하고 오직 시민만 보겠다”고 밝 히며 “나주를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부 친이 눈을 감고 어머니가 밭을 일구던 삶의 터전’이자 ‘자신의 삶 그 자체’로 정의했다. 그는 “오직 시민만 보는 순간 나주의 새로운 봄이 시작된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정치는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행사는 김원희·김상욱·고민정·양 부남·이계호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도 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축전을 통 해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특히 신정훈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이재태 도원에게 항상 빛을 지고 살아 왔다며, 시민들이 대신 갈아타라”며 이 재태 도원의 정치적 앞날을 격려했다.

토크 콘서트는 시민들과의 즉석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시민 접촉면 넓힌 ‘즉석 토크 콘서트’로 호응을 얻었다.

지역에서는 이 의원의 탄탄한 조직 기반과 지지세를 확인한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이재태 의원과 윤병태 현 시 장의 ‘강력한 양강 구도’가 본격화됐다 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나주=조합천 기자 pose007@